광주·전남 사회인 야구 ‘가을축제’ 9월 2일 개막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함평 야구장서

광일·무등리그 각 16개팀 토너먼트
11월 11일 무등경기장에서 결승전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가 시작된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제8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9월 2일 함평 야구장에서 개막한다.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잔치로 자리매김한 무등기는 무등리그와 광일리그로 나눠 진행되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챔피언을 가리게 된다.

무등리그의 첨단 돌솥감자탕과 쏘울스토리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대회는 11월 11일까지 두 달여간의 대장정을 펼친다. 무등리그와 광일리그의 마지막 승자를 다투는 결승전은 오는 11월 11일 무등경기장에서 진행된다.

무등기 정상에 오르기 위해 무등리그 16개 팀과 광일리그 16개 팀이 출사표를 던졌다.

무등리그와 광일리그 우승팀에게는 각각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각 리그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만원이 돌아간다. 공동 3위 팀들은 상금 10만원을 받는다.

그라운드를 빛낸 선수들을 위한 개인 타이틀 시상도 이뤄진다.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부상으로 수여되고, 우수선수와 최우수심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무등리그의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챔피언인 무등리그의 자연환경이 다시 한번 대회 정상을 노리고, 지난 시즌 광일리그 우승팀인 쏘울스토리도 무등리그 우승에 도전한다. 2016년 챔피언인 카멋진넘도 무등리그로 자리를 옮겨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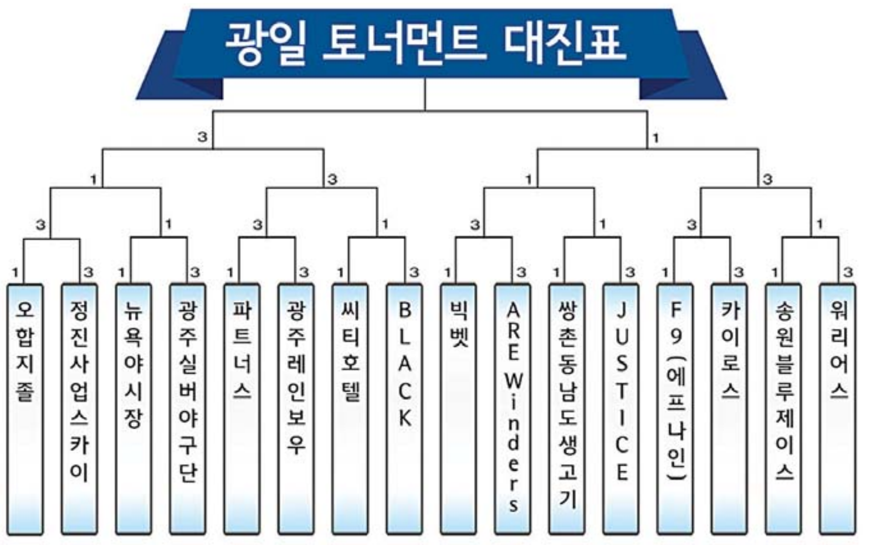
나이를 잊은 야구 열정도 확인할 수 있다. 50세 이상의 야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로 구성된 광주실버야구단이 무등기에서 특별한 도전에 나선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며 전라남도체육회가 후원한다.

또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축제에 함께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광일리그 16강전 에프나인과 쏘울스토리의 경기.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일리그



◇ ARE Winders(대표 박동원·이지호)

2002년 1월 5일 돌풍스라는 이름으로 창단해 지난 2016년 1월 1일 ‘ARE Winders’ 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꾸준히 발전하는 팀을 꿈꾼다.

▲감독 : 박동원 ▲총무 : 김진우 ▲단장 : 임춘호 ▲주장 : 이지호 ▲선수 : 김영준 임현섭 민동욱 이봉운 김준희 최정민 이세진 김영성 신동훈 박광영 강향만 서기선

◇ BLACK(대표 송승용)

지난해 11월에 팀을 창단해 정식으로 보내는 첫 리그. 재밌게 신나게 야구를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신생팀의 당찬 도전이 시작된다.

▲감독 : 구정진 ▲총무 : 송승용 ▲선수 : 권효석 김민 김창진 김태성 박성수 송명근 윤경성 이재광 이창훈 장상주 정민기 정용현 채호진 허준

◇ F9(에프나인·대표 진용우)

2013년부터 매년 참가했던 무등기. 정정당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로 올해는 꼭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무등기 정상에 서겠다.

▲감독 : 진용우 ▲코치 : 노요한 ▲총무 : 문웅남 ▲선수 : 조준영 박종현 오규종 진성수 조정훈 박진오 장봉현 오정민 이종옥 탁홍석 이승윤 임동일 강대철 기승주 노경천 최용석 조영오 정기준 문병현 김영욱

◇ JUSTICE(대표 이기홍)

야구라는 공통분모로 모인 사람들. 언제나 즐기면서 야구를 하는 게 목표다. 즐겁게 최선을 다한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다.

▲감독 : 이기홍 ▲선수 : 권순관 김건재 김유신 김종민 김정환 서동천 신백호 심민기 신지호 이동협 오명진 이성엽 이경석 이호열 이화영 임진강 장현용 전현도 정남진 조영록 이기남 박범연

◇ 광주 레인보우(대표 정광진)

2007년 조그마한 야구놀이에서 시작해 2008년부터 정식 유니폼을 입고 토요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 실력보다는 즐기며 경기에 임한다

▲감독 : 정광진 ▲총무 : 이권 ▲코치 : 하광철 ▲주장 : 지정근 ▲선수 : 임채영 최헌영 진보선 박창현 김장준 양대구 김병종 민승기 구현 송민종 하희성 오상민 김희욱 이철신 김공철 강동구 황동현 서철민 김수용

◇ 광주실버야구단(대표 손용옥)

나이를 잊었다. 50세 이상의 야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우수한 성적과 매너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실버사회인야구클럽의 힘을 보여준다.

▲감독 : 손용옥 ▲총무 : 여기철 ▲선수 : 심재인 김수용 은희욱 박우현 박정일 조중현 이유학 이용하 유상수 홍판영 정재훈 박병오 나은주 박종재

◇ 뉴욕야시장야구단(대표 김관현)

금호동 뉴욕야시장의 후원 속에 야구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으로 야구를 하고 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려고 한다.

▲감독 : 박용주 ▲총무 : 김관현 ▲선수 : 정상백 김영선 이근옥 김영준 안태근 김성훈 류진 권현준 이동훈 조지훈 기양서 윤가람 양희권 양혜성 서광섭

◇ 빅벳(대표 서성현)

태권 전사들이 그라운드에 선다. 광주에서 태권 도장을 하는 관장들로 구성된 팀이다. 무등기 첫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감독 : 서성현 ▲ 선수 : 최진수 한인승 편황범 이선호 윤준열 안남규 전창현 김상우 최영환 최슬아 한태훈 박지석 김우재 김대규 구영일

◇ 송원블루제이스(대표 박재형)

송원대학교·송원학원 교직원들과 학생, 졸업생 등으로 이뤄진 10년 차 야구팀 인생도 사랑도 야구도 모두 만루 홈런을 치자는 마음으로 야구로 스트레스를 푼다.

▲감독 : 박재형 ▲단장 : 선종석 ▲코치 : 김대균 ▲선수 : 윤홍재 김종한 강병섭 장근호 서성현 오치경 최신우 이기행 이혜석 정광현 정용진 정준호 정성현 최민우 박시훈 강성문 주종진 김영웅

◇ 쌍촌동 남도생고기(대표 이광식)

야구 열정 하나 만큼은 국가대표! 한 경기 한 경기 웃음을 잃지 않는 야구! 즐거운 야구! 외면과 내면이 아름다운 쌍촌동남도생고기 야구단이다.

▲고문 : 안재형 ▲감독 : 이광식 ▲코치 : 강윤성 나보현 ▲총무 : 김성주 ▲선수 : 송원진 이민욱 강산 김훈희 문형건 서영균 조연익 정혁수 이병훈 장태호 이정훈 이수훈 박제령 이현우 이대우

◇ 시티호텔(대표 전범현)

광주 첨단, 광천동에 위치한 시티호텔 야구단이다. 무등기를 통해서 즐거운 가을 야구를 기다리고 있다.

▲감독 : 전범현 ▲선수 : 한지수 노대현 고세환 국준 정준도 김진수 국민 박선호 노충현 김민수 박종환 김강석 이강은

◇ 오합지졸(대표 오영학)

이름은 오합지졸이지만 야구로 똘똘 뭉쳤다. 팀워크를 바탕으로 무등기 정상에 도전한다.

▲감독 : 오영학 ▲선수 : 류성민 최영선 최우석 김대경 고대로 전중영 이규만 이준원 구성모 방승지 강태화 이범준 황보준수 정지훈 고대윤 김재중 나광현 나관영 양현준 오영주 유창섭 이승은

◇ 워리어스(대표 박재석)

정정당당한 승부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전사들이다. 무등기에서의 포효를 준비하고 있다.

▲감독 : 박재석 ▲선수 : 김동욱 김민영 문익국 박상선 박윤상 서현철 서황진 이기민 이승환 장병찬 김경준 김도환 김병희 김진혁 나재현 노재기 민태호 박찬모 서상석 신수권 김동현 나으리

◇ 정진산업 스카이(대표 조승현)

스카이 야구단으로 20년의 시간을 보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노련한 팀의 환상적인 팀워크로 가을 잔치에 나선다.

▲감독 : 우해동 ▲단장 : 박창균 ▲코치 김태호 ▲구단주 : 조승현 ▲총무 : 이권 ▲선수 : 정재윤 오영익 최병훈 김준석 심정진 강기철 조경영 김세곤 정준섭 이근식 신백호 최순흥 노영주 최홍준 원태현

◇ 카이로스(대표 김용수)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좋은 팀이다. 바로 착한 성품의 선수들이 오로지 페어플레이만 고집한다.

▲감독 : 김용수 ▲선수 : 양영철 정준섭 한희준 홍강욱 안병국 김기석 김동완 최순흥 안명순 임현규 임진우 남준성 박인철 이동혁 윤정승 이민욱 오종인 이세준 이재학 임명규 임홍서 최정재

◇ 파트너스 (대표 김창근)

즐기는 야구가 아닌, 최선을 다해 승리를 준비한다.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야구 클럽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다.

▲감독 : 김창근 ▲선수 : 서제형 김대원 국범석 김병주 김영복 김은민 김현성 박노을 박성호 박재현 박준용 방재원 심기환 엄기선 이영준 장영일 정운필 조경민 김용준 이동주 송승열

무등리그

◇ 그린요양병원(대표 강유순)

광산리그 토요 1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나는 가을 야구를 꿈꾸며 무등기에 출사표를 던졌다.

▲감독 : 전상만 ▲선수 : 강유순 이승규 김경노 김경호 김성은 김창집 김현구 박종희 노기백 조준 신광유 안제순 이백년 임철웅 조정윤 최범석 박종철 최재춘 조민 송희청

◇ 금호허리케인(대표 고남석)

2015년 무등기 챔피언으로서 다시 한번 영광을 누리기 위해 도전하다. ‘어게인 2015’를 외치며 우승의 순간을 그린다.

▲감독 : 고상석 ▲선수 : 최용석 강진혁 고남석 이종진 이충헌 조상식 주기환 이유현 이정헌 장재구 김기철 고진석 노진성 강신우 선석진 김종원 박현철 정승종 박홍선

◇ 로즈스나이퍼스(대표 김진호)

2010년 야구 열정을 가진 이들이 모여 여정을 시작했다. 끈끈한 팀워크와 기본기로 무등기 무대에 선다.

▲감독 : 김진호 ▲총무 : 윤현호 ▲재무 : 최병훈 ▲코치 : 김광호 ▲선수 : 송창섭 김대현 박성술 김홍림 최상효 박성경 최희규 김형수 이강은 김선옥 정승철 한용희 박현제 채효석 김병록 김중석 박양기 조치호 박진석

◇ 백구클럽(대표 이영국)

탑베이스볼 2부 A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 야구로 하나가 되는 이들의 즐거운 도전기가 펼쳐진다.

▲감독 : 이영국 ▲선수 : 조철휘 강대승 강진옥 김선구 김자훈 김종길 박상현 송주현 이병현 이재경 이호영 이호웅 전성환 정영만 조주형

◇ 세진야구단(대표 장덕진)

419 빛고을 2부리그에서 실력을 키워가고 있다. 무등기를 위한 준비는 끝났다.

▲감독 : 장덕진 ▲선수 : 엄종열 송판기 박기수 황경연 김병균 박영환 이건욱 엄기선 홍승효 심재선 김종원 박영훈 김성광 최인석 김진욱

◇ 쏘울스토리(대표 윤정승)

야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뭉쳤다. 느낌 가득한 그들의 그라운드 이야기가 무등기에서 새로 쓰인다.

▲감독 : 윤정승 ▲선수 : 임진강 이동혁 김석철 김태호 김용수 임현규 박용모 손동완 박인철 오종인 이재학 이민욱 유재민 양진 정준섭 이세준 최상록 박용희 김남국 양영철 이영준 임진우

◇ 아웃도어모터스 포비스(대표 류호현)

광주생활체육협회 백두리그에서 뛰고 있다. 거침없는 질주로 무등기 정상에 도전한다.

▲감독 : 류호현 ▲선수 : 허승현 박철오 손영생 류호주 주민수 정윤재 신승민 최재현 박민호 강백산 강도현 유연진 김현호 조철주 이재청 조민관 양하성

◇ 액터스(대표 박보현)

전통의 명문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16년 차 액터스. 매년 플레이오프 4강 진출에 성공하며 우승 경험도 가지고 있다.

▲감독 : 박보현 ▲코치 : 김영환 ▲선수 : 강호영 김경진 김광연 박삼기 김영민 김영필 한권욱 김현창 김훈 봉준희 신성식 유호진 이기성 이명성 이재열 조홍찬 차봉욱 서영석 홍석 박보건 문종준

◇ 어벤져스(대표 신종호)

광주생활체육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보팀. 창단 후 두 번째 시즌을 보내는 이들이 가을 잔치에 함께 한다.

▲감독 : 김동현 ▲선수 : 권효중 김기윤 김한 박찬우 이준휘 박준선 고광진 김용천 김지현 박정기 신종호 김형섭 문성모 길호천 임홍범 김희식

◇ 자연환경(대표 백규식)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로 대한민국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 특유의 팀워크로 무등기 열전을 책임진다.

▲단장 : 백규식 ▲감독 : 정상현 ▲코치 : 김기동 양건우 ▲선수 : 김도후 김만철 김용신 노윤호 류영광 박래준 박철준 박남필 신경수 신해수 정승연 황수현 최용희 허재웅 최정재

◇ 첨단돌솥감자탕(대표 조형철)

▲감독 : 조형철 ▲선수 : 강판식 고준성 구성규 김성만 김종일 박대성 박형식 배광철 서경복 송용국 윤정담 윤환우 이건상 정경민 정영관 정영태 조동선 조현철 최희성 황석훈

◇ 카멋진넘(대표 윤명훈)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매너와 실력을 갖춘 팀. 2016년 광일리그를 제패했던 이들이 이번 가을에는 무등리그 우승에 도전한다.

▲감독 : 윤명훈 ▲선수 : 정성면 최정상 김강민 정호영 쥐호 김회동 공명규 기년수 국범석 조영오 이형수 김용선 박상신 신주열 서준호 최수빈 정효종 박진오 김상수 국준

◇ 타요바리스타즈(대표 박주용)

TAYO cafe의 후원 속에 토요 광산리그와 일요 함평리그를 소화하고 있다. 매년 무등기와 함께 하는 가을, 우승을 목표로 뛴다.

▲감독 : 박주용 ▲선수 : 정선기 정영진 유진우 서동훈 오치훈 이용훈 조진훈 조환민 홍석주 한승현 주철우 이기남 위동철 김동인 천재웅 김진원 양지승 박준서 김윤학 김영권 조양성

◇ 태평법률상담소(대표 양준태)

무등기 2회 대회부터 매년 빠지지 않고 우승에 도전하는 개근생이다. 준우승과 우승까지 기록한 우등생이기도 하다.

▲감독 : 양준태 ▲선수 : 송승렬 양민준 김봉민 정승환 방민택 김민수 박경민 서정길 성기영 고현무 이재욱 조경영 박용태 김민혁 최웅 최제용 조장훈

◇ 패밀리(대표 김권중)

이름처럼 가족적인 분위기의 야구를 추구한다. 끈끈한 팀워크로 무등기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달린다.

▲감독 : 김권중 ▲선수 : 기현호 정기종 방영환 안기중 강진옥 구태홍 이영국 송경진 최인석 김형선 정민호 김진욱 김상준 박태성 신누리 정성하

◇ bj저져스(대표 정태성)

초·중·고 친구와 선배들이 야구로 뭉쳤다. 화순리그 1분 메이저에서 신바람 야구를 하고 있다. 무등기를 한 단계 도약하는 무대로 삼았다.

▲감독 : 정태성 ▲선수 : 김동수 김길수 백영민 김대경 노진호 남경원 김진우 김태진 최세종 차철안 박남필 김성빈 정승원 임재현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